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3 부> 감사로 봉사하는 삶

마흔 일곱 번째 주일(주의 날) (LORD's Day 47)

122 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요?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당신을 올바로 알도록 허락해 주셔서, <sup>(1)</sup>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당신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을 거룩히 여기고, 드높이며, 찬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sup>(2)</sup> 게다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을 그에 걸맞게 정돈하게 하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심과 찬송을 받으시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sup>(3)</sup>

참조 성경귀절들:

(1) 요한복음 17:3; 마태복음 16:17; 야고보서 1:5; 시편 119:105.

(2) 시편 119:137; 로마서 11:33-36.

(3) 시편 71:8; 100:3,4; 92:1,2; 에베소서 1:16,17; 시편 71:16.

Question 122. What is the first petition?

Answer:

“Hallowed be Your name;” that is, grant us, first, rightly to know You, <sup>(1)</sup> and to sanctify, magnify, and praise You in all Your works, in which Your power, goodness, justice, mercy, and truth shine forth; <sup>(2)</sup> and further, that we so order our whole life, our thoughts, words, and deeds, that Your Name may not be blasphemed, but honored and praised on our account. <sup>(3)</sup>

Bible References:

(1) John 17:3; Matthew 16:17; James 1:5; Psalm 119:105.

(2) Psalm 119:137; Romans 11:33-36.

(3) Psalm 71:8; 100:3,4; 92:1,2; Ephesians 1:16,17; Psalm 71:16.

1. 주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6 개의 간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3 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간구들이다. 나머지는 우리들 자신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순서야 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생활에서 꼭 지켜져야 할 성경적이요 주요한 순서이다. 따라서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이다.

2.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송축하는 길은 우리가 그 분을 어떻게,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분에 대해 제대로 알 길이 전혀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성령님의 내적 조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 가지도 못하며, 그 분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된다.

3. 일단 내주하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 기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엄위하심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분을 송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반드시 자라 나서 우리가 그 분의 이름을 더욱 더 거룩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4.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즉 우리의 언행심사 전반에서 우리가 그 분만을 향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치며, 구별되게 사는 삶을 당연히 살아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온전히 그 분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기를 간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1. There are six petitions in the Prayer taught by the LORD Jesus. Its first half is about God Himself. And the second half is about ourselves. That is the right and biblical order for us to focus in our prayers as well.

2. How to properly worship and glorify God is totally dependent upon our knowledge of God Himself. Yet unless God reveals Himself to us in the Bible, we have no way to know Him properly as we ought to. Even the knowledge of God in the Bible cannot be comprehended unless the illumination of the Spirit of God is given to us as a gift from God. And by the illumination of the Spirit of God, we know that only through the Son

of God, Jesus Christ we can rightly and properly approach and comprehend God as He revealed Himself to us.

3. Once we are enlightened by the work of the indwelling Holy Spirit, we are fully aware of one fact that our highest objective of prayer is to praise God for His glory and majesty. Thus, first of all, we must pray to God for increasing our knowledge of Him and making us more hallow His holy name.

4. By the help of God we must pursue to consecrate our whole life to glorify and praise Him in our thoughts, deeds, speeches, and hearts. Therefore, we must pray for our life of consecration that we never profane His holy name in our entire life on earth!)